

東南方言의 研究와 特徵에 대하여

崔 明 玉

(서울대 교수, 국어학)

I. 序 言

동남 방언은 (앞으로는 “이 방언”이라 칭한다), 국어 방언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된 초창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小倉進平 1915). 그로부터 1985년까지 71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이 방언에 대하여 2백 편이 훨씬 넘는 論著가 발표되었다. 타방언에 비하여 이 방언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 결과는 量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나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 방언에 대하여 연구·발표된 論著가 1915년에서 1974년까지 60년 동안에 90여 편이었던 데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에 발표된 것은 120편이 넘는다는 데서 넉넉히 짐작된다.¹⁾ 이 점에서 1970년대 중반은 이 방언의 연구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기가 된다.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첫째, 연구자의

1) 이 숫자는 學術總覽(학술원 편, 1967 제 1집 <국어 국문학편>, 1974 제 2집 <국어 국문학 보유편 1>)과 韓國論著解題 1(민족 문화 연구소(고려대) 편, 1972 <언어·문학편>, 1977 <언어·문학편 2>), 그리고 方言 2(1979), 6(1982), 8(1985)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1973년 이전 : 1974년 이후의 각 분야별 논저의 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음운(45 : 66/음소 29 : 51, 성조 16 : 15), 어휘·형태(18 : 12), 통사(1 : 28), 지명(3 : 3), 방언 구획(7 : 1), 사회 언어학(2 : 5), 기타(16 : 9).

신분에 있어서, 전자의 主役은 주로 기성 학자들이었던 데 비하여 후자의 主役은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학 이론과 방법을 습득한 신진 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전자는 역사 언어학적이거나 구조주의 언어학적인데 비하여 후자는 변형·생성 문법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연구 분야에 있어서, 전자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았던 통사론 분야가 후자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게 된 점이다. 넷째, 연구 대상 지역에 있어서, 전자보다 후자의 지역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다는 점이다.²⁾

以上은 이 방언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몇 가지 특징으로 묶어 본 것이니 하겠는데 이 글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 방언에 대한 연구를 史的으로 개관하고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열거·고찰하며 하위 방언 구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서술된다.

Ⅱ. 研究概觀

국어의 다른 방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와 같이, 이 방언의 연구도 3개의 서로 다른 언어학의 이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이론·바역사·비교 언어학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그리고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 그것이다. 이들 이론은 언어 연구의 목적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언어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방언의 연구는, 어떤 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느냐에 따라, 크게 3期로 구분될 수 있다. 1950년대 중기 이전의 역사·비교 언어학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를 제 1기, 그 이후로부터 1970년대 중기 이전까지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를 제 2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변형·생성 문법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시기를

2)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 지역은 경북의 안동군, 의성군, 금릉군, 칠곡군, 예천군, 울릉군, 월성군, 대구시와 경남의 양산군, 김해군, 남해군, 부산시, 진주시, 삼천포시에 한정되었으나 그 이후의 연구 지역은 경남·북의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제 3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전시기의 이론과 방법에 의한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방언의 연구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그러한 연구에 비중을 두면서 논의하려고 한다. 논의는 음운, 형태 및 어휘, 통사, 그리고 기타의 순으로 한다.

음운면에 있어서, 제 1기의 연구는 小倉進平和 河野六郎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음운사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단위의 방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한 전국 대상의 방언 연구의 일부분으로 이 방언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小倉進平(1940)과 河野六郎(1945)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연구 주제는 주로 음운사적인 것으로, 중세 국어에까지 사용되다가 없어진 ㄷ, ㅌ, ㅍ와 중부 방언에는 없으나 다른 방언에는 존재하는 語中の ‘ㄱ’ <물개(모래 沙), 멸구(머루) 등에 보이는 ‘ㄱ’>, 구개음화, 이중 모음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연구는 음운 변화를 음운 체계와 관련짓지 못하고 개별 단어에 대한 個體史를 추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제 2기가 시작된 오랜 뒤에까지 계속되었다.

제 2기에 있어서, 이 방언의 음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 1기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이 역사적인 것에서 공시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연구 대상 지역이 어느 한 지역으로 축소된 점이 있다. 그리고 축소된 지역에 대한 언어 체계 특히 음운 체계를 밝히는데 비중을 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는 대부분이 음운론적인 것이 된다.

이 시기의 음운 연구는 다시 음소 연구와 성조 연구로 구별된다.

음소 연구는 대부분이 모음 체계를 구명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단모음 체계는 최소 대립쌍(minimal pairs)에서 두 음이 의미 분화의 기능을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방언의 單母音體系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에’와 ‘애’, ‘으’와 ‘어’가 의미 분화의 기능을 가지며 ‘위’와 ‘외’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가가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중 모음은 語頭에서 실현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자음 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주목되었다(許雄 1954; 金永松 1963; 鄭然榮 1968a 등). 이

시기에는 음운 현상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李炳銑(1967, 1971)은 각각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鼻母音化와 모음 조화 현상을 다루었다.

성조 연구는 許雄(1954)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許雄(1954)는 김해 지역어를 대상으로 聲調素와 체언의 성조형을 밝히고 곡용과 활용에 있어서의 성조 변동을 기술한 것인바 이 논문은 그 후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성조 연구의 典型이 되었다. 그러나 성조소의 수에 있어서는 연구자간에 전개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許雄(1954), 文孝根(1962/1974), 그리고 鄭然榮(1968b)에서 그러한 전해차를 찾을 수 있다. 한편 鄭然榮(1969, 1974)는 성조의 기능 부담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방언은 엄격한 의미의 성조 언어가 아니며 이 방언의 성조 체계는 word-pitch system 이라고 보았다.

제 3기의 음운 연구는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음운 현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 2기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음운 연구는 형태소들의 基底形 또는 기저 성조형을 찾고 그들 기저형 또는 기저 성조형이 결합될 때에 적용되는 음운 규칙을 찾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음운 현상에 대한 기술은 더욱 정밀을 요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음소 연구는 李秉根(1973)에서 비롯되어 崔明玉(1976a, 1982)와 申承遠(1982), 白斗鉉(1982), 李東華(1984), 崔重鎬(1984) 등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성조 현상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성조 연구는 그렇게 활발한 편이 못 된다. 그 방면의 연구는 주로 어절 단위에 작용하는 성조 규칙에 대한 것으로서 金次均(1973, 1977), Ramsey(1974, 1975), 趙賢淑(1985) 등이 있다.

한편, 문헌 자료를 통한 이 방언의 음운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지만(徐在克 1962, 1969; 김 주원 1984 등) 해당 지역어의 자료를 통한 내적 재구와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특정 지역어에 대한 통시 음운 연구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했다(崔明玉 1980, 1982a; 朴昌遠 1983).

형태 및 어휘에 대한 연구는 제 1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小倉進

平 1924 등) 제 2기에 들어 와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체로 문법 형태소의 목록 작성(羅鎭錫 1963; 崔鶴根 1964·65; 成洛秀 1973 등)이나 조어론적인 것(金永信 1978; 金亨柱 1979 등), 그리고 통사 음운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어휘(金永信 1963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통사면의 연구는 제 2기에 들어 와서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金昌植 1960; 申昌淳 1972 등). 그러나 형태소의 통사론적 제약이나 통사 기능, 그리고 의미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는 제 3기에 들어 와서 시작되었다. 그 방면의 연구는 활용 어미에 대한 것(千時權 1975; 崔明玉 1976b; 姜信沆 1978; 徐禎穆 1979; 박 종갑 1982 등)과 경어법에 대한 것(姜信沆 1980; 崔明玉 1982b; 曹逸圭 1982 등)이 주가 되는데 격어미에 대한 것(李相揆 1982 등), 불완전 명사에 대한 것(孔榮丘 1983; 권 재일 1986) 등으로 점차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 지명 연구는 자연 부락명을 통하여 그 유형이나 그 형태를 분석하거나(朴泰權 1972), 그 구성 방법과 음운 규칙을 밝히거나(鄭喆 1973), 모음 변동을 기술하는(全在昊 1974)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Ⅲ. 方言特徵

이 방언은 고대 국어인 신라어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며 신라가 고려에 합병되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개경(개성)으로 옮겨진 이후로 오랫동안 중앙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하여 더 많은 古語의 자취를 간직하며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을 음운, 형태·어휘, 통사면으로 나누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운면에서, 대체로 이 방언은 국어의 여러 방언 중에서 가장 적은 모음 수를 가진 6모음 체제(이, 에/애, 으/어, 우, 오, 아)를 가진다. 그리하여 ‘에’와 ‘애’, ‘으’와 ‘어’는, 班村과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이 방언에서 별개의 음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음 중에서는 ‘ㄴ’과 ‘ㄷ’

이 낙동강의 동쪽 지역어에서 별개의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특징의 일부를 이룬다(1). 이중 모음은 그 앞에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 분명히 드러나며 자음 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또 음절 경계에서 先行音節의 말음 ‘ㄷ, ㅁ, ㄴ, ㅇ’이 그 다음에 오는 이중 모음의 頭音으로 連音되지 않는 것도 이 방언의 한 특징이다(3).

- (1) [살](살肉, 쌀米), [성는다](섞는다濕, 썩는다腐) 등.
- (2) 열(十), 양(羊), 울(傭) 등; 기(귀), 디(뒤), 병/빙(병病), 구척(규척) 등.
- (3) [몽요일](목-요-일), [문뇨](문-요), [칼료](칼-요?) 등.

역사적 변화 중 비교적 그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구개음화<저(며彼), 질(길道), 심(힘力)>, 음라우트<계기(고기), 예렵다(어렵다)>, 전설 고모음화<썰개/실개(צל개), 씨리다/시리다(쓰리다)> 등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다른 방언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난 ‘△’와 ‘빙’의 변화로 소위 ‘ㅅ’과 ‘ㄷ’ 변칙 동사는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으며(4), 표준어의 명사 어간말의 ‘ㅅ’이나 ‘ㄷ’은 거의 ‘ㄴ’이나 ‘ㅌ’으로 변하였다(5). 또 ‘에’가 ‘이’로 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북 방언은 다른 어느 방언보다 이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였다(6).

- (4) 저서라(저曹+어라), 미버도(밧襁+어도) 등.
- (5) 벵틀(빛光+을), 꼬틀(꽃花+을) 등.
- (6) 비(베布), 미느리(며느리), 티비(퇴비) 등.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 이 방언의 특징은 동사 어간과 부사형 어미 ‘-아’가 결합될 때에 발견된다. 그 경우에 어미 ‘-아’는 일음절 어간 뒤에서는 모음조화를 잘 보이지만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아’로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7ㄱ). 그러나 태백 산맥 동쪽의 해안 지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음절 어간을 제외하면, 모음 조화와 관계 없이 항상 ‘-아’로만 실현된다(7ㄴ). 이와는 반대로 안동군, 청송군, 영천군, 경산군 등 동해안 지역과 인접한 지역어에서는 그 경우에 어미 ‘-아’는 ‘-어’로 실현된다(7ㄷ).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회 언어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어간이 ‘-아’와 결합

하면 동북 지역어에서는 ‘에’로 실현되고(7ㄷ) 그 밖의 지역어에서는 ‘이’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이다(7ㄱ).

- (7) ㄱ. 자바도(잡+아도), 더퍼도(덜+아도); 어드바도(어둡+아도), 부끄러바도(부끄럼+아도) 등.
 ㄴ. 마가도(막+아도), 더파도(덜+아도), 이바도(임+아도) 등.
 ㄷ. 마거도, 더퍼도, 이버도 등.
 ㄹ. 기다레도(기다리+아도), 때레도(때리+아도), 이페도(입히+아도)
 ㄴ. 기다리도, 때리도, 이피도 등.

성조소는 대체로 경북(경남의 울주군의 일부 포함) 방언에 ‘高’와 ‘低’의 둘이 있고 경남 방언에는 ‘高’, ‘中’, ‘低’의 셋이 있다. 형태소 결합에서의 어간 성조 변동은 활용에서만 존재하고 곡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8).

- (8) ㄱ. 밤도[LL/LM], 밤만[LL/LM], 밤이[LL/LM], 밤에[LL/LM] (粟)
 [H=고조, M=중조, L=저조]
 ㄴ. 울교[LL/LM], 울지[LL/LM], 울어도[HLL/HMM](泣)

형태면에서의 이 방언의 특징은 문법 형태소인 어미에서 찾을 수 있다. 활용 어미 중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종결 어미로는 ‘존대’의 의문 종결 어미와 설명 종결 어미이다(9). 연결 어미로는 조건 표시 어미(-으면)와 이유 표시 어미(-으니까)가 특징적이고(10) 선어말 어미로는 존대 어미(-으시)가(11), 그리고 격어미로는 대격 어미(-을/를)와 공동격 어미(-와/과)가(12) 특징적이다.

- (9) 집에 {가니(이)꺼, 가느교, 감니꺼, 감니까}? , 이게 {책이꺼, 책인교, 책임니꺼, 책임니까}? ; 집에 {가니(이)더, 감니더, 감니다}, 이게 {책이시더, 책임니더, 책임니다}.
- (10) 조건: 봄이 {오모, 오머, 오마} 끝(뫼)이 핀다; 이유: 집에 {강께, 가이까네, 가이꺼네, 가이께네} 아무도 없더라.
- (11) 제 말을 믿으이소(믿으세요); 그 애 말을 믿으입시다(믿으십시오).
- (12) ㄱ. 물로(물을) 묵는다, 소로(소를) 물고 간다.
 ㄴ. 이 일은 {니하고 내하고, 니캉 내캉}(너와 나와) 해야 된다.

어휘적인 특징은 음운사적인 것(13)과 특이한 것(14)에서 찾을 수 있다.

(13) ㄱ. 추비/추부(추위), 더비/더부(더위), 새비(새우), 고방(광부), 자부름(줄음), 호부래비(홀아비), 따뱅이/따바리(또아리), 가분데(가운데), 이부지(이웃), 예비다/예비다(여위다), 쪼부러진다(기우러진다) 등 (이상 ‘ㅂ’에 소급될 수 있는 것).

ㄴ. 야시/예수(여우), 가시개/가새(가위), 가실(가을), 저실(겨울), 마실(마을), 꼬시름(그으름), 부석(부엌), 꼬실다(그을다) 등 (이상 ‘ㅅ’에 소급될 수 있는 것).

(14) ㄱ. 가분다리(진드기), 비리(진딧물), 뽀비(뽀기), 능까/능가(벼랑), 잔지(물 없는 김치), 지렁(간장), 십장구/명장구/싱거무(명), 입수구리/입수부리/입소리(입술), 그렁저(그렁자), 멀꺼덩이(머리카락), 깨배기/개냉이/애앵구(고양이) 등 (이상 명사).

ㄴ. 칼ळ다(깨끗하다), 보듬다(껴안다), 머라ळ다(꾸중하다), 찰기다(〈뽕이나 오줌을〉 지리다), 동개다(포개다), 후비다/도덕키다/똥부다(똥치다), 까리비다(꼬집다), 다구지다(다부지다), 새첩다(예쁘다), 다말다(다름박질하다) 등 (이상 동사).

ㄷ. 백지/백지(공연회), 하마/하머(벌새), 맹(역시), 하모(그래), 어언제(아니), 항거석(많이), 다부(도로), 엄치(훨씬), 함부래(아예), 호부(홀), 지주움지주움/시시마꿈(제각기) 등 (이상 부사).

통사적인 특징은 의문문, 부정문, 그리고 관형절 등에서 발견된다. 의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대’에서 나타나는 종결 어미의 선택인데, 서술어가 체언이고 어간과 어미 사이에 先語末語尾가 개재되지 않으면 종결 어미 ‘-가, -고’가 선택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나, -노’가 선택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 -나’와 ‘-고, -노’는 문 속의 의문사의 有無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으로서 의문사가 없으면 전자가, 있으면 후자가 각각 선택된다(15). 다른 하나는 2인칭인 청자가 주어일 때, 동사 어간에 연결된 ‘앗+더’는 과거 회상이나 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16).

(15) ㄱ. 이게 니 책이까? ; 이게 누구 책이고?

ㄴ. 그게 책이더나? ; 그게 누구 책이더노?

ㄷ. 지금 비가 오나? ; 비가 얼마나 마이(많이) 오노?

ㄹ. 계기 낚았나(고기 낚았니)? ; 계기 멘(뒷)마리나 낚았노?

(16) 니 어제 어디 갔더노(너 어제 어디 갔었니)?

현대 국어에서 부사 ‘안/아니’에 의한 부정문은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안 한다, 안 먹는다 등)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지 않다’의 부정문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예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등) 이 방언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안/아니’에 의한 부정문이 일반적이다(17).

(17) ㄱ. 오늘은 일을 안 한다; 한 마리도 안 잡았다.

ㄴ. 얼굴이 이쁘거나(예쁘거나) 안 이쁘거나 상간(상관)없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절은 기본문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시제가 현재이면 서술어 어미를 관형형 어미 ‘-는’으로 대체하고 과거이면 관형형 어미 ‘-은’으로 대체함으로써 형성된다([사람이 간다] 사람→가는 사람, [사람이 호랑이를 잡았다] 호랑이→사람이 잡은 호랑이). 그런데 경북 방언(경북에 접한 경남의 해안 지역어 포함)에서는 기본문의 시제가 과거일 때 과거 시제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어미가 ‘-는’으로 대체되어 관형사절이 형성된다(18).

(18) ㄱ. 어제 잡았는 제기(고기)가 아직도 살아 있다.

ㄴ. 그거(그것)는 니가 샀는 책 아이가(아니니)?

Ⅳ. 下位方言區劃

이 방언의 하위 방언 구획 문제는 5편의 논문에서 취급되었다. 千時權(1965)와 李基白(1969)가 경북 방언의 구획 문제를, 金永松(1963)과, 金永泰(1975)가 경남 방언의 구획 문제를 논했으며 박 지홍(1983)은 이 방언 전체의 구획 문제를 논했다. 경북 방언은, 千時權(1965)에 의하면 3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뉘고 李基白(1969)에 의하면, 음운과 어휘를 기준할 때, 각각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뉘고 존대의 의문과 서술 종결 어미를 기준할 때, 3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뉜다. 한편, 경남 방언은, 金永松(1963)에 의하면 2개의 하위 방언권 즉 동북 경남 방언권(경북에 접한 지역에서 낙동강 본류 유역에 이르는 지역)과 서남 경남 방언권(전라도에

접한 서부 경남과 바다에 접한 남부 경남 지역)으로 나뉘고 金永泰(1975)에 의하면 3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뉜다.³⁾

그런데, 이 방언은 경북 방언과 경남 방언으로 확연히 양분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ㅅ’과 ‘ㅆ’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은 낙동강 동쪽의 경남·북에 걸쳐 있으며 이유 표시 어미 ‘-으께’의 분포 지역 역시 경북의 상주군, 금릉군과 경남의 서남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이 방언 전체에 대한 하위 방언 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에서 박 지홍(1983)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박 지홍(1983)은 존대의 의문 및 설명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이 방언이 6개의 하위 방언권 즉 상주 방언권, 안동 방언권, 경주 방언권, 대구 방언권, 김해 방언권, 그리고 진주 방언권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李基白(1969)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언 구획은 음운, 어휘, 어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이 방언의 하위 방언 구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餘 言

지금까지 필자는 동남 방언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개관하고 이 방언의 특징과 하위 방언 구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여 왔다. 연구 개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방언이 많은 젊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다 정밀하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연구와는 달리, 이 방언의 자료는 활발하게 수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에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방대한 방언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조사 대상 지역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다.⁴⁾

3) 千時權(1965), 李基白(1969), 金永泰(1975)에 의한 하위 방언 구획도는 田光鉉(1986: 51-53)을 참조할 것.

4) 개인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로는 全在昊(1966)과 金永泰(1975) 등이 있으며 단체에 의한 것으로는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1967 등)과 부산 방언 연구회(1977) 등이 있다.

오늘날 이 지역은 공업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구 이동과 표준어 교육,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방언의 순수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세대는 노년층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면 연구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교체되면 그 세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영 수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信沆(1978), 安東方言의 叙述과 疑問法, 언어학 3.
- (1980), 安東方言의 敬語法, 蘭汀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 孔榮丘(1983), 永川方言의 補文名詞 ‘지·동·강·공’ 研究, 大邱大 大學院(碩士).
- 권 재일(1986), 경북 방언의 의존 명사, 白旻全在昊博士華甲紀念 國語學論叢.
- 金永松(1963), 慶尙南道方言 〈音韻〉, 慶尙南道誌(中).
- 金永信(1963), 慶尙南道方言 〈語彙〉, 慶尙南道誌(中).
- (1978), 昌原方言의 造語法研究, 허 응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 金永泰(1975), 慶尙南道方言研究 (I) —자료편, 進明文化社.
- 김 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 人文研究 6, 嶺南大.
- 김 차균(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
- (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大 박사 학위 논문.
- 金昌植(1960), 大邱方言攷一疑向形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연구 4, 청구대.
- 김 형주(1979), 남해도 방언의 조어법 연구, 국어국문학 3, 東亞大.
- 羅鎮錫(1963), 慶尙南道方言 〈語法〉, 慶尙南道誌(中).
- 文孝根(1962/1974),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韓國語 聲調의 分析의 研究, 세종출판공사.
- 박 중갑(1982), 의창 지역어의 수사 의문문에 관한 연구—의미·화용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嶺南大 大學院(碩士).
- 박 지홍(1983), 경상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 설정, 人文論叢 24, 釜山大.
- 朴昌遠(1983),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研究 54.

- 朴泰權(1972), 金海 지방의 지명 연구, 釜山大 論文集 14.
- 白斗鉉(1982), 金陵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文學과 言語研究 11, 慶北大.
- 부산 방언 연구회(1977), 부산 방언 어휘집(1), 한글 159.
- 徐在克(1962), 慶北方言 研究—文獻上에 나타난 資料를 中心하여—, 語文學 8.
- (1969), 慶州方言의 副詞形—a와 鄉歌‘良’, 語文學 21.
- 徐禎穆(1979), 慶南方言의 疑問法에 대하여, 언어 4·2.
-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1967), 第1次 3個年 計劃(1964-66) 安東文化圈 學術調查書: 方言篇.
- 成洛秀(1973), 경상도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연세대 대학원(碩士).
- 申承遠(1982), 義城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嶺南大 大學院(碩士).
- 申昌淳(1972), 安東方言의 叙想法 終結語尾, 安東文化 2.
- 李基白(1969), 慶尙北道의 方言區劃, 東西文化 3, 啓明大.
- 李東華(1984), 安東地域語의 音韻同化와 削除, 嶺南大 大學院(碩士).
- 李秉根(1973), 東海岸 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 李炳統(1967), 鼻母音化現象攷—慶尙道方言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37·38.
- (1971), 慶南方言에서의 母音調和現象, 국어국문학 54.
- 李相揆(1982), 東南方言의 與格標識研究(1), 韓國方言學 2.
- 田光鉉(1986), 現代國語의 方言圈, 국어생활 5.
- 全在昊(1966), 大邱方言研究—資料篇, 語文學 14.
- (1974), 慶北 中部地域의 地名調查研究, 東洋文化研究 1, 慶北大.
- 鄭然榮(1968a), 慶南方言의 母音體系—특히 固城, 統營 附近을 中心으로—, 國文學論集 2, 檀國大.
- (1968b), 慶尙道方言의 聲調에 대한 몇 가지 問題點,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1969), 國語 聲調의 機能負擔量에 대하여, 金載元博士回甲論文集.
- (1974), 慶尙道 方言 聲調研究, 國語學 紀要 1, 西江大.
- 鄭 喆(1973), 지명 연구—의성·예천 지구를 중심으로—, 淸溪 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 曹逸圭(1982), 慶南 三千浦地域語의 尊卑法研究, 檀國大 大學院(碩士).
- 趙賢淑(1985), 慶北方言의 韻律體系研究—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國語研究 66.
- 千時權(1965), 慶北方言의 方言區劃, 語文學 13.
- (1975), 慶北方言의 疑問添辭에 대하여, 國語教育研究 7, 慶北大.
- 崔明玉(1976a),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 (1976b), 現代國語의 疑問法—西南 慶南方言을 中心으로—, 學術院論文集 15.
- (1980), 慶北月城方言의 音韻變化에 대하여, 新羅伽倻文化 11, 嶺南大.

- (1982a),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 (1982b), 親族名稱과 敬語法—慶北 北部地域의 班村語를 中心으로—, 方言 6.
- 崔重鎬(1984), 固城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母音을 中心으로—, 慶南大 大學院 (碩士).
- 崔鶴根(1964·65), 경상도 방언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 국어국문학 27·28.
- 許 雄(1954), 慶尙道方言의 聲調, 崔鉉培先生還甲紀念論文集.
- 小倉進平(1915), 慶尙南道 方言, 朝鮮彙報 4.
- (1924/1944), 新羅語와 慶尙北道方言, 朝鮮語方言의 研究. 岩波書店. 東京.
- (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Tokyo.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考—‘缺’語攷, 東都書籍, 서울.
- Ramsey, S.R. (1974), 咸鏡·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 2.
- (1975/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國語學叢書 9, 塔出版社.

●속담(농사)●

- 가을에는 부지깥이도 덩벙인다 : 가을 추수 때 몹시 바쁨을 일컫는 말.
- 귀뚜라미 풍류한다 : 논 손질을 게을리하여 논이 거칠어졌을 때 하는 말.
- 김매는데 주인이 아흔아홉 뭇 맨다 : 남을 부려서 하는 일에는 주인이 더 애를 쓴다는 말.
- 가을 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 밀이 어둑하다 : 가을에 타작을 하여 남에게 줄 것은 주고 갚을 것은 갚고 나서 빗자루 하나로 춤추듯 쓸어도 남는 것이 많을 만큼 농사일이 어둑다는 말.
- 가을 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 가을 일은 할 일이 많아서 요령을 부려 약게 하는 것보다 미련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성과가 크다는 말.